

KT, 전선 협력업체 선정

KT(사장 이용경)가 광 및 통신케이블(F/S) 입찰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던 종전 방침에서 최근 특정 업체를 선정, 제한적 입찰방식을 채택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 관계자는 18일 “최근 일정 심사를 거쳐 광케이블 8개 업체, F/S 케이블 12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며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선정 업체는 20개 이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영화를 계기로 지난해 연말 시설공사 발주시 협력업체를 통해 공사업체를 확정키로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전선 협력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1년 동안만 협력업체를 통해 케이블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시기 연장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탈락한 전선업체는 당장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KT는 이번에 선정한 협력업체를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시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탈락 업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전선업체는 최소 1년 동안 KT에 전선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황이다.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한 전선업체 관계자는 “KT가 전선 분야에도 협력업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중소 전선업체는 고사위기에 직면했다”며 “수주물량 감소가 뻔한 상황인데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 암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광케이블의 경우 총 12개 신청 업체 중 대한전선, LG전선, 희성전선, 일진전기, 넥상스, 삼성전자, 머큐리, 화백물산 등 8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또 F/S 케이블의 경우 19개 신청업체 중 대한전선, LG전선, 희성전선, 진로산업, 일진전기, 넥상스, 대원전선, 극동전선, 코스모링크, 고려산업개발, 혜성전선, 화백물산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다.

한전-남부발전 印尼발전소 ‘동반 건설’

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인도네시아 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한다.

한전은 13일 인도네시아에 60만kW급 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 위해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은 10일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PL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인도네시아 발전소는 60만kW급 2기로 석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한전은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PLN에 공급키로 했으며, 발전소 건설에는 총 5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현재로선 발전소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했으며, 인도네시아측이 고려하고 있는 6개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하고 “사업용역을 체결하기 위해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1년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번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전력공급 대금은 석탄과 LNG로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남부발전이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다. 한편 한전은 앞으로 해외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발전 부문은 물론 송배전 분야까지 해외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比 파나이섬 전력사업 참여 타당성 조사

한전이 필리핀 중부 파나이섬의 전력사업 참여를 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3일 빈센트 페레스 필리핀 에너지장관의 ‘한전의 파나이섬 전력사업 참여’ 발언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지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필리핀 파나이섬 현지의 전력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필리핀 정부에서 민간회사의 전력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며 “하지만 아직 발전소 건설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이전의 논의 단계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파나이섬은 내년경 제한송전을 넘어 전력공급이 차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빈센트 페레스 필리핀 에너지장관은 3일 한전과 알스툼, 미란트 등 6개 업체가 파나이섬 전력 프로젝트 참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페레스 장관은 발표문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최근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며 “시장에 근거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파나이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월성 주변압기 교체 돌입

국내 최대용량 변압기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월성원전 1호기 주변압기 교체작업을 지난 3일 착수, 25일 완료해 원전 정비가 완료되는 내달 13일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되는 변압기는 국내 최대용량인 840MVA급으로 중량 351톤, 가로 11.45m, 세로 6.3m, 높이(애관 포함) 9.12m에 이른다. 1차 정격전압은 26kV이며 2차 정격전압은 345kV이다. 한국전력기술이 설계, 현대중공업이 제작·공급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대부분의 다른 원전 및 변전소와 달리 주변압기로 3상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어 주변압기 용량이 국내 최대 규모”라며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과 설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변압기 교체를 결정해 지금까지 교체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가동연수가 오래된 원전들은 변압기 권선 절연불량으로 인해 안전계전기가 작동함에 따라 정상가동 중에 불시 정지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이번 주변압기 교체는 이같은 불시 정지를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월성 1호기는 정격용량이 678.7MW으로 지난 83년 4월 국내 두 번째로 가동됐다. 원전의 주변압기가 교체되기는 지난해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1호기에 이어 세 번째로 고리 2호기 주변압기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원전 주변압기는 송전선로와 연결된 원전 최말단 계통의 기기로서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계통에 알맞도록 승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배전용변압기 ‘표준화’ 본격화

한전이 배전용 변압기의 규격 표준화·단순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전 배전처(처장 황병준)는 배전용 변압기 단순화와 표준화를 위해 6개 규격에 대한 구매시방서 제·개정(안)을 수립하고 26일 관련 부서와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3월 중에 구매시방서를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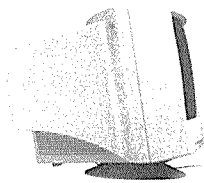
한전은 이와 관련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운영 중인 10개 규격 130종의 배전용 변압기 규격을 5개 규격 34종으로 대폭 단순화·표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배전용 변압기 장단기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연말 발표했다.

한전의 이같은 계획은 220V의 승압사업이 지난 2000년 완료되고 저손실 G6 철심의 대량 생산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무선부하 측정장치의 보급이 활발해지는 등 배전용 변압기의 운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배전용 변압기의 운영효과를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변압기 규격의 표준화를 위해서 일반형과 내염형으로 이원화 운영되던 변압기 1차 붓싱을 환경오염의 확산에 대비하고 오손도 측정과 세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내염형 붓싱으로 단일화했다. 또 220V의 승압이 완료됨에 따라 두 가지로 운영되던 변압기 2차 정격전압을 230V로 단일화해 저압 붓싱의 수를 줄이고 변압기 내부 배선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전압 조정범위도 과거 저전압 보상체제에서 과전압도 병행 보상할 수 있도록 230V±5%로 개선했다.

한전은 또 철심의 생산기술 발전과 무선부하 측정장치의 개발 등 운영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규소철심용 변압기의 경우 과거 철심 종류에 따라 일반용, 저손실형, E-Type형으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손실특성이 약 6% 향상된 표준형 변압기로 단일화하고, 특수용도용 변압기는 보호장치형으로 통합해 전체 배전용 변압기 종류를 과거 130종에서 34종으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00억원의 손실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검수시험과 고장예비품 확보 등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제조업체도 이번 조치로 부품 및 제조공정이 표준화되고 생산설비가 단순화돼 품질향상은 물론 개발시험 비용과 생산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